

##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정책 방향

### 2008년 제7회 한·중경제포럼

1. 주제 : 최근 중국경제 운행의 주요 특징 및 미래 발전 추세
2. 일시 : 2008. 12. 4(목) 16:00~18:00
3. 발표자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리지엔웨이(李建伟) 주임

### 1.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평가

#### 가. 경제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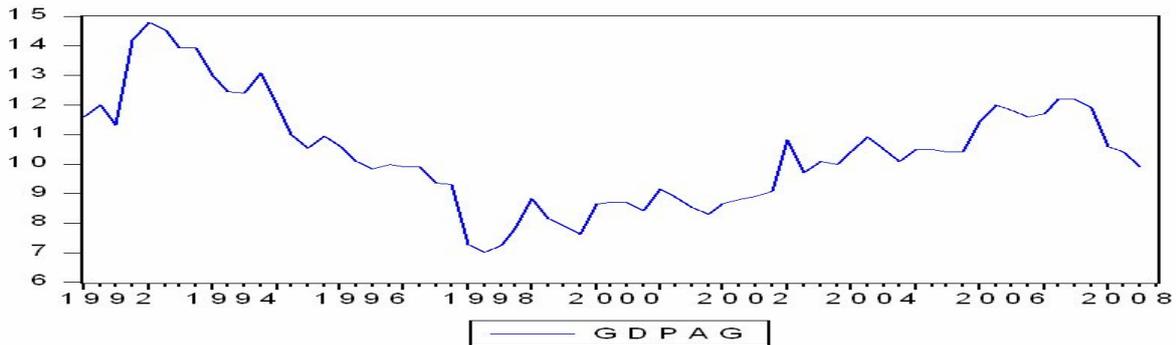
- 2007년 3/4분기부터 GDP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경제는 이미 둔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GDP성장률이 1999년 7.6%까지 둔화되었다가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200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
- 2002년부터는 고성장세를 시현한 바, GDP성장률은 2001년 8.3%에서 2007년 11.9%까지 상승

- 그러나 2007년 3/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둔화

· 최근 GDP성장률 추이: 2007년 상반기 12.2% → 2008년 상반기 10.4% → 2008년 1~9월 9.9%

<그림 1> GDP성장률 추이(1992년 1/4분기~2008년 3/4분기)

(단위: %)



## 나. 산업 성장세 부진

□ 1차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2006년 3/4분기부터, 2차 및 3차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2007년 3/4분기부터 각각 둔화세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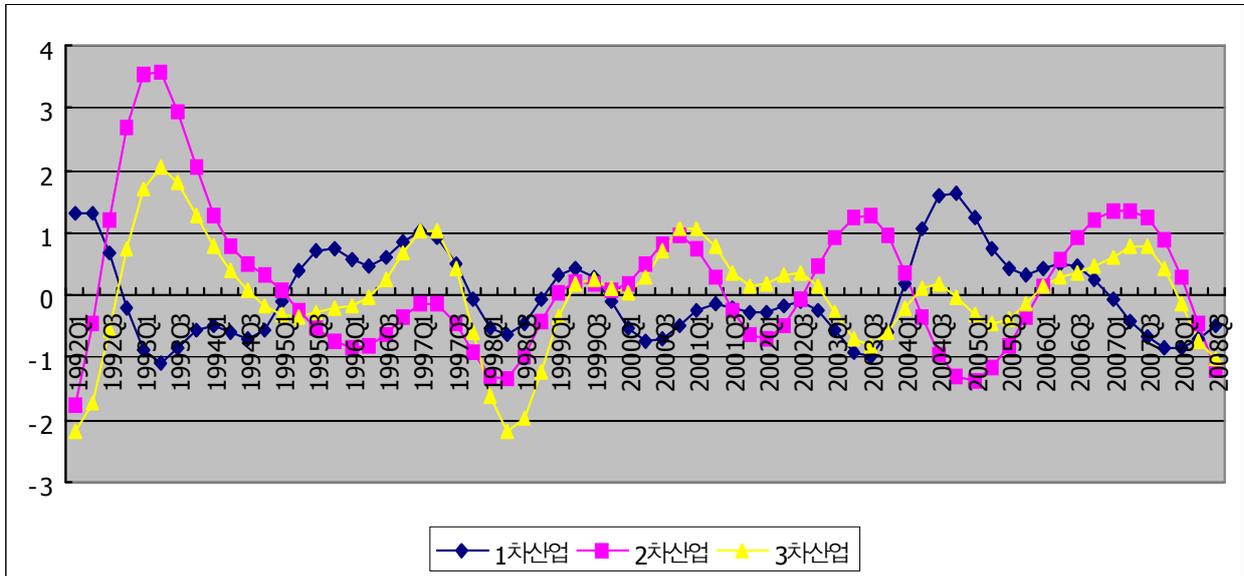
- 2차산업 가운데 중국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규모이상 공업(기업 연간 생산액 500만 위안)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2007년 4/4분기부터 중단기 주기적 변동의 하락 단계로 진입

- 2008년 1~7월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16.1%에 불과(2007년 성장률 18.5% 보다 2.4% 포인트 하락)

- 현재 중국은 중화학 공업화 발전단계에 있는 바, 공업발전이 하강기에 진입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도 하강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그림 2>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92년 1/4분기~2008년 3/4분기)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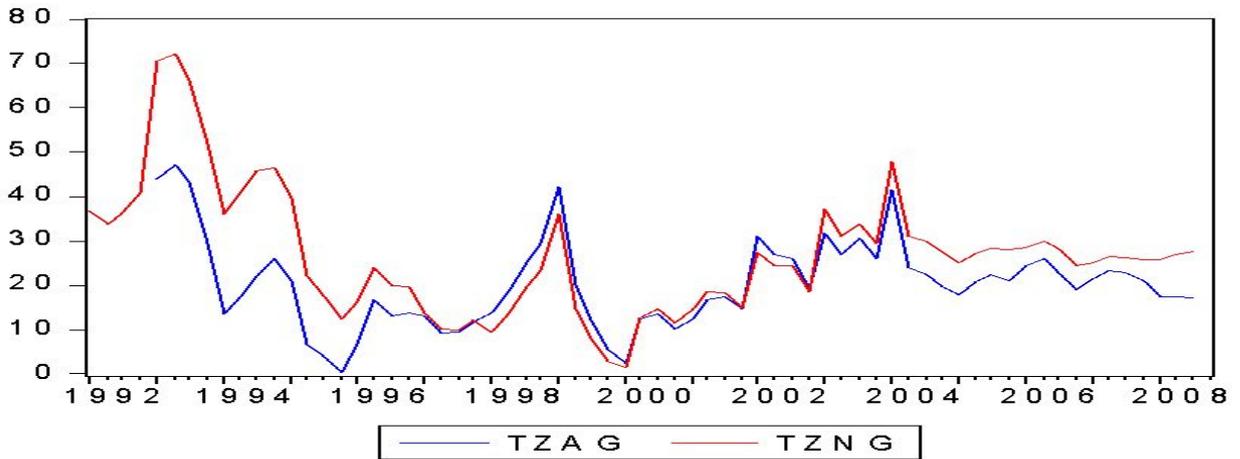


다. 실질투자증가율 위축

□ 중화학 공업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투자의 주기적 변동이 소비와 GDP를 선행한다는 것임.

- 중국경제의 경우 투자는 2002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경기과열에 대비한 정부의 긴축 정책 실시 결과 도시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04년 1/4분기 47.8%에서 2005년 1/4분기 25.3%로 떨어진 이후 줄곧 약 26% 정도를 유지
- 도시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08년 1~9월 기간 동안 27.6%로 여전히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하였으나, 실질투자증가율은 2007년 3/4분기부터 둔화하기 시작

<그림 3> 도시 고정자산투자의 명목증가율(TZNG)과 실질증가율(TZAG) 추이(1992년 1/4분기~ 2008년 3/4분기)



## 라. 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가로 소비가 2006년 3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 소비 증가율은 2008년 3/4분기에 주기적 정점에 달해 GDP성장률(2007년 상반기 정점)에 비해 1년 정도 후행한 것으로 판단됨.
  - 소비 증가율은 2006년 4월 13.6%에서 2008년 1~9월 중 22%로 상승. 특히 9월 소비 증가율(23.2%)은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실질소비도 약 14%정도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
  - 그러나 10월부터 소비 증가율이 하락(22%)하기 시작하였으며 11월, 12월 소비 증가율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마. 수출 부진, 무역흑자 감소

- 2008년 1~9월 중 수출증가율은 22.3%로 2007년 상반기 대비 5.1%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동기간 무역흑자는 1,8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억 달러 감소함.
-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의 수출 부진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2005~2007년) 평균 2.3% 포인트에 달하고 있는 GDP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지난 3년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2008년 GDP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0.5% 포인트 미만일 것으로 추정)

## 바. 물가 상승세 둔화

- 2008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식료품 가격의 둔화로 2008년 1~9월 중 CPI상승률은 6.7%로 안정세를 보임.
- CPI상승률은 10월 이후 4%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전체로는 약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PPI는 2007년 8월 2.6%에서 2008년 8월 10.1%까지 상승하였으나, 8월 이후 점차 둔화하여 2008년 1~9월 중 8.3% 상승

## 2. 향후 경제성장 전망

### 가. 단기 전망1: 미국발 금융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중국의 GDP성장률은 2008년 10.3%, 2009년 9.8%로 추정되었으나 이러한 추정치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이는 2008년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 단기 전망2: 미국발 금융위기를 고려한 경우

- 미국발 금융위기를 고려하고 중국과 미국의 2008년 3/4분기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GDP성장률은 2008년 9.8%, 2009년 8.4%로 추정
- 경제성장 둔화는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며 2011년 1/4분기 GDP성장률이 8.8%를 기록한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만일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2009년 GDP 성장률은 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sup>1)</sup>

#### 다. 중장기 전망

- 잠재 GDP성장률은 2006년 9.8%에서 2012년 9.9%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한 이후 2015년부터 점차 둔화세를 보이며 2020년 8.2%로 하락할 전망이다.
- 잠재성장률이 2012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국의 중화학공업 발전도 2012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이 긴 이유는 지역별 발전격차가 크기 때문인데, 동부의 일부 지역은 이미 공업화의 중간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중서부 지역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 정도가 현재 동부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이 향후 10~20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1) 민간연구소가 제시한 2009년 GDP성장률 전망치 가운데는 7%인 경우도 있으며, 사회과학원의 세계경제정책연구소는 2009년 GDP 성장률을 9.3%로 예측

### 3. 거시조정정책 방향

#### 가. 기본 방향

-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퇴조되었으므로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긴축 완화성향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 나. 통화정책: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 2008년 하반기 중국정부는 이전에 비해 강도 높은 금리 및 기준률 인하조치를 단행
-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9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 특히 11월 27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1.08% 포인트 인하
- 기준률도 9월과 10월에 이어 12월 5일자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 포인트,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 다. 재정정책: 안정에서 지출확대로 전환

- 중국정부는 최근 2010년까지 총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함(2008.11).
- 이 중 1조 1,800억 위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
- 이러한 경기부양 조치는 향후 2년간(2009~2010년) 경제성장률을 1~2%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라. 기타 주요 정책 방향

□ 이밖에 주요 정책 방향 및 내용은 아래 <표 1>을 참조

<표 1> 기타 정책 방향 및 내용

주요 정책 및 조치	내용
1. 식량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안전 보장은 물가상승을 통제하고 국제 식량가격의 변동에 따른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해 필요</li> <li>· 식량 수출 통제, 식량 비축 확대</li> <li>· 최저 매수가격 인상</li> <li>· 농업 지원책 확대</li> </ul>
2. 내수 안정화(총수요 위축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시장 활성화</li> <li>· 인프라 투자 확대</li> <li>· 수출 기업,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해 세수 우대 및 대출 지원</li> <li>· 수출 환급세율 인상</li> <li>·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li> <li>· 연료세 인하</li> </ul>
3. 환율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적인 위안화 절상을 조정(핫머니 유입 방지, 금융위기 대처, 수출기업 보호 등)</li> </ul>
4.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대출 규제 완화, R&amp;D 지원 확대 등)</li> </ul>
5. 개혁과 구조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개혁과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성장모델 방식 전환</li> </ul>

□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2009~2010년 중국경제는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지 않을 것임.

### <질의·응답>

질문 1: 중국경제가 2007년 3/4분기부터 둔화 국면에 직면했다는 점을 알았다면 2008년 초반 중국 정부가 시행했던 긴축 통화정책은 정책상 판단 오류라고 볼 수 있는가?

답변 1:

인민은행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한 것은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확대에 대

응하기 위해서임. 급속한 외환보유고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타의 조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기준율과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임. 그러나 긴축 통화정책의 실시 과정 중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였다면 지속적인 긴축 통화정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임.

질문 2: 2008년 경제성장률을 9.8%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4/4분기 성장률이 9.5% 이상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임. 그러나 최근 경제부진을 감안하여 11월 경제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실현 가능한가?

답변 2:

단순히 공업 부가가치 성장률에 의존하여 GDP 성장률을 예측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소비 수요 둔화 정도가 크지 않고, 전력 및 철강 등 생산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공업 생산이 모두 비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4/4분기 성장률이 급속히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08년 9.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님. 과거 1998, 1999년 당시 8% 정도의 공업 부가가치 성장률로도 8% 정도의 GDP 성장률을 견인한 적도 있음.

질문 3: 중국정부가 발표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조치가 대부분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고용확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답변 3: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일정한 경제성장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정 수준의 취업을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질문 4: 최근 실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 경제성장률이 2006년 9.8%에서 2012년 9.9%로 높아 질 것이라는 예측이 어떻게 가능한가?

답변 4:

잠재 경제성장률은 수십 년간의 실제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경제성장의 중장기 추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성장률의 단기적 변동과 같다고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보다 높았으나 이 같은 상황이 2008년은 물론 2009년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음. 잠재 성장률은 실제 경제성장의 과열이나 쇠퇴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며, 잠재 성장률이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경제성장의 잠재적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

질문 5:

중화학 공업화 과정 중 자동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감축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5: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력 있는 노동집약형 산업은 계속 유지시킬 것임. 또한 그동안 하이테크 산업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형 산업도 빠르게 발전을 이룸.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 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의 보호와 취업안정도 중요함. 최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에 못 지않게 방직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음.

질문 6: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답변 6: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의 경기부양 조치 규모는 약 19조 위안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 전국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3조 위안이고, 현행 예산법상 지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방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기부양조치의 규모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님. 또한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매각 수입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지방정부의 은행 대출 역시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19조 위안에 달한다는 각 지방정부의 경기부양조치 규모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앙정부가 충당할 계획인 1조 1,800억 위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함. 1조 1,800억 위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재정수입에서 직접 충당하는 방법임. 최근 몇 년간의 재정수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만일 재정수입 증가율이 20%정도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경우 재정적자가 우려됨.

두 번째 방법은 국채발행임. 현재 경제여건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나 중앙정부는 비교적 풍족한 잉여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국채를 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질문 7: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 조치들을 고려할 경우 2009년 소비, 투자, 수출입의 증가율에 대한 전망은?

답변 7:

중국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들을 고려한다면 2009년 수출, 수입, 소비, 투자의 증가율은 각각 15%, 12%, 11%, 1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GDP 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이 확실시 되나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대략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